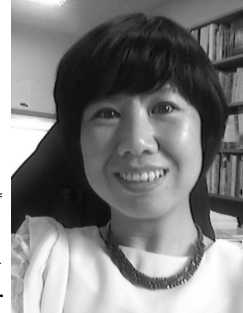


섬유 · 패션의류산업의 재조명과 발전과제



이임자*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ijrhee@kiet.re.kr

1.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최근 동향

지난 한 해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은 혹독한 경기 불황 한파를 겪으며 지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난 후 잠시 숨 고를 틈도 없이 비집고 온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섬유·패션의류업체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시련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는 주요 생산관련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전년비 생산지수는 -4.9%로 2012년의 -2.4%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출하지수 역시 감소한 반면,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체증으로 재고지수는 전년비 7.1% 높아져 업황부진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산지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위축을 꼽을 수 있다. 섬유 내수는 유로존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로 전년에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수료
- 현)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소재·생활친화산업팀 부연구위원
- 디자인 등을 활용한 생활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2013), 미국, 일본, EU의 섬유수입 동향 및 전망(2013), KIET 산업경제 전망(2013), 주요부품소재산업의 한미 FTA 활용방안 연구(2012), 섬유산업 목표관리제 이행전략 및 정책과제(2012)

이어 지속적인 역신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의류 소비 위축으로 봉제의류 생산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의류 생산용 원사 및 직편물 생산의 연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섬유업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 밖에 지난 4월초 시작된 개성공단 조업 중단, 5월 이후 전력난 위기에 따른 화섬업체의 감산 단행 등이 생산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기지표 개선,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원면 등 원자재가 상승을 반영한 섬유원료 가격 상승, 환율변동 등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수출은 글로벌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 2.1% 감소에서 2013년에는 2.3%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대선진권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개도국 수출이 크게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에 이어 제2의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대베트남 수출이 20% 가까이 성장하며 수출 확대를 견인한 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0.2% 성장으로 보합세를 보여 대개도국 수출이 3.1% 성장하였다. 반면 선진권 수출은 대EU 수출(6.7%)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대미(0.4%), 대일(-2.9%) 수출은 다소 부진하여 전년비 0.4% 성장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의류의 대개도국 수출(18.4%)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비 11.4%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류에 따른 국산 브랜드 선호 및 의류 소비 증가에 기인한다. 섬유 수입은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여력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지지 못해 중저가품 중심의 불황형 소비가 확대되어 수입 역시 중저가 의류 등 범용제품의 대개도국 수입(15.6%)이 급격히 확대된 반면, 고가의 대선진권 수입(0.1%)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내수부진에 따른 저가 소비 확대로 중저가 의류 완제품(20.5%) 역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1]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주요 동향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구 분		2012	2013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4	-4.9	-5.5	-2.7	-5.5	-5.6	16.2	-11.0	-8.2
	생산(전기비)	-	-	-4.2	-3.7	-4.9	-9.4	-2.5	-9.9	-6.6
	출하	-1.2	-3.8	-2.3	-2.3	-5.4	-5.0	14.5	-9.9	-5.9
	재고	-2.5	7.1	-3.5	1.8	6.6	7.1	3.6	0.0	-0.4
	가동률	-2.8	-0.6	4.6	11.6	-5.0	4.9	15.0	-6.4	-2.2
교역 동향	수출	-2.1	2.3	0.1	4.1	-3.0	8.1	16.6	0.6	7.7
	수입	-5.1	12.7	4.6	10.3	14.2	20.4	21.3	17.6	22.5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1) 11월,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 섬유산업은 섬유, 의복, 화학섬유 기준임.

이상과 같은 최근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실적 변화는 단기적인 경기변동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과 더불어 서울의 섬유·패션의류산업 현황 및 위상변화에 대해 고려하고자 한다.

2.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구조 변화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이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2000년대 초반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 경기 요인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 역시 국내 생산과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이와 같은 회복세가 그간의 부진을 딛고 재도약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경쟁력을 높여가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우리의 섬유·패션의류산업은 양적 성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해외 생산기지 이전 확대와 국내 생산기반의 약화가 지속되면서 물량 기준 생산규모는 지속 감소하여 국내 산업 위상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수출 증가율이 국내 생산 증가율보다 낮아 생산수출간 실적 격차가 확대되었고, 섬유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져 과거 수출 중심의 산업에서 내수산업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섬유·패션의류산업 위상 변화

구 분	업체수 (천개)		고 용 (천명)		생산액 (조원)		부가가치 (조원)		수 출 (억불)	
	2000	2012	2000	2012	2000	2012	2000	2012	2000	2013
제조업	313	360	3,333	3,715	534	1,511	205	480	1,723	5,596
섬 전	52.1	44.9	485.5	301.9	36.7	44.9	15.6	16.5	188	160
유 국	(16.6)	(12.5)	(14.6)	(8.1)	(6.9)	(3.0)	(7.6)	(3.4)	(10.9)	(2.9)
패 서	20.7	18.8	157.4	109.2	7.9	15.6	3.2	6.8	11.7	7.1
선 울	(39.7)	(41.8)	(32.4)	(36.2)	(21.6)	(34.8)	(20.4)	(41.5)	(62.4)	(44.6)

출처: 업체수 및 고용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1인 이상), 생산액 및 부가가치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10인 이상), 수출은 한국무역협회.

주: 전국의 ()안은 전국 제조업 대비 비중, 서울의 ()안은 전국 섬유패션의류대비 서울의 비중임.

그러나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의 차별화 전략에 따라 국내 섬유산업의 핵심적 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 일부 긍정적 성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에서는 섬유산업의 현황에 대해 부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은 지속적인 인건비 및 생산비의 증가와 생산설비의 과잉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하여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양적 확대 대신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고부가제품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 섬유·패션의류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성장동력은 산업용섬유와 패션의류이다. 산업용 섬유는 산업자재의 경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추세에 따른 용도의 확대 및 수요 증가로 지난 10년간 생산비중이 약 10%에서 20% 정도로 높아졌다. 의류는 중국 등 중저가 의류의 수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내수 패션브랜드의류를 중심으로 패션화고급화하면서 점차 생산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둘째, 투자 고도화 및 생산의 국제분업 가속화를 들 수 있다.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투자전략은 봉제의류 등 노동집약적 범용제품은 가격경쟁력 개선을 목표로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하는 반면, 국내 투자는 화학섬유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고도화하면서 고부가 제품의 국내생산, 저부가제품의 해외생산 확대로 국제분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설비투자는 과거 설비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2009년 이후에는 화학섬유 업체를 중심으로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등 고부가가치 차별화제품 개발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봉제의류 복 부문의 설비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저렴한 인건비 활용을 목적으로 한 봉제의류 생산기지 이전이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 1990년대에는 현지 봉제의류 생산을 위한 원사 및 직물 등 섬유소재 이전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봉제의류와 섬유소재 모두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에는 연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2012~2013년 다소 주춤하였던 해외직접투자는 금년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투자전략 고도화는 국내 수출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80년대 후반 이후 봉제 중심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국내 섬유 수출은 과거 봉제의류에서 해외 생산용 직물 수출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내적으로 국내 생산 봉제의류가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열세로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시장을 잠식당하자 생산비용 절감형 해외투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투자전략에 기인한다. 또한 2011년 이후 섬유 수출의 회복세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동남아로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진출업체의 수출의류용 섬유소재의 조달 확대

에 기인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노동력 확보 애로 등 생산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국내 섬유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생산비가 더욱 저렴한 동남아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섬유 수출은 직물 수출비중이 점차 높아져 2013년 전체 수출의 58.7%를 차지하는 반면, 현지 생산된 중저가 의류의 역수입 확대로 의류가 전체 수입의 53.8%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산업용 섬유소재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라 IT, BT, NT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발전 가속화로 고성능 산업용섬유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다가오는 몇 년간은 금년부터 본격 생산되기 시작하는 탄소섬유 생산과 더불어 자동차, 항공기, 조선 등 수송기기 초경량화의 부품소재로 활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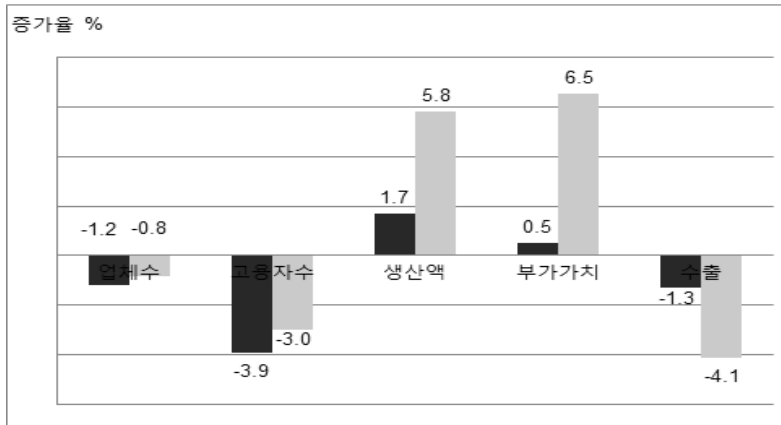
3. 서울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위상 및 구조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대내외 여건, 생존을 위한 생산 및 투자 전략 등이 유기적인 관계들을 형성하며 섬유·패션의류업체의 성과와 산업구조가 결정되어 왔다. 그 속에서 서울은 거대한 유통시장과 인구 등을 기반으로 섬유소재보다는 패션의류 부문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중 서울소재 비중은 사업체수가 41.8%, 종사자수가 36.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점차 서울 집중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노동집약도가 높은 봉제의류 생산업체가 서울에 가장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데, 서울소재 섬유·패션의류업체의 74.8%, 종사자수의 85.9%가 봉제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상황속에 서울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비중은 점차 확대되며 서울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 성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의 높은 봉제 경쟁력은 경기북부의 고품질의 편직물 및 염색업체, 반월·시화·포천 등의 염색업체 등 배후의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성과면에서 보면 서울지역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감소폭이 적고,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정국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수출 성장률은 2000년 대비 봉제의류 수출 감소와 더불어 서울의 수출 감소폭이 월등히 높다. 이는 국내 수출 품목 구조가 과거 봉제의류에서 직물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 결과 서울시의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수출비중은 2000년 62.4%에서 2013년 44.36%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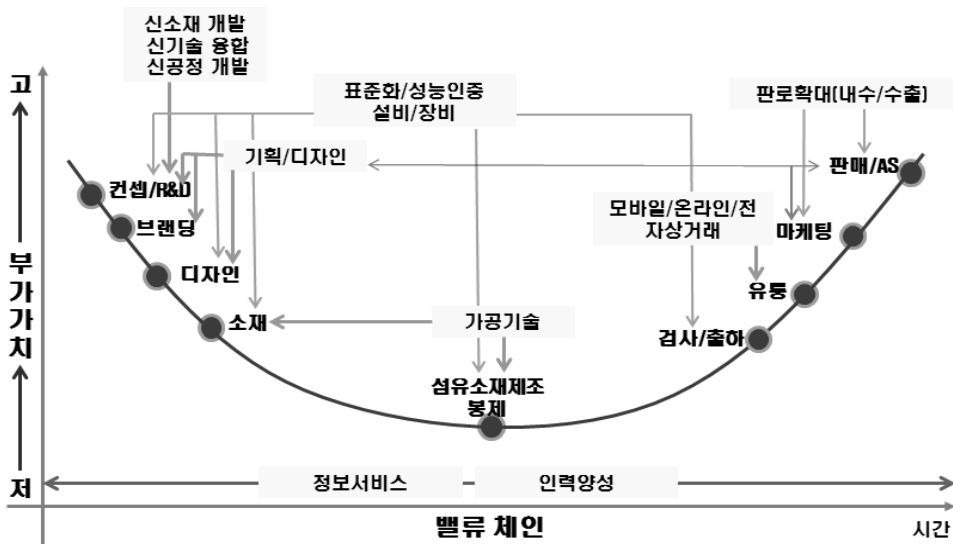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및 서울 섬유패션의류업체 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우리나라 최대 패션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는 패션산업 관련 많은 인프라 갖추고 있으며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정책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패션의류를 포함한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하여 디자이너의 패션쇼 및 수주 전시 등 패션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대문 상권의 영세 브랜드업체와 봉제업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관련 인프라로는 서울통산산업진흥우언이 운영하는 서울패션디자인센터, 동대문 서울패션센터, 동대문 패션창작 스튜디오, 동대문 패션지원센터 등이 있다. 그 외에 섬유·패션의류산업 관련 유관기관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 등 다양한 협회가 있다. 더구나 2012년 이후 서울에서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동대문의류봉제협회, 강북봉제지원센터 등 관련단체와 조합이 활발하게 창립되면서 봉제산업의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4.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발전과제

현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 산업경제와 관련하여 중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여성, 창조경제, 생태계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으로 섬유패션의류산업을 꼽을 수 있겠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R&D, 기획, 디자인, 유통, 마케팅 등 분야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기술발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이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입증한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99%의 중소 섬유패션의류업체와 높은 여성 고용비중(전국 기준 51.4%, 봉제업체 기준으로는 64.8%)은 “고용률 70%”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료, 소재, 부품, 제조, 유통의 다단계적 생산구조를 가진 섬유패션의류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경쟁력 제고의 관건이다.



[그림 2]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별류체인과 정책방향

이제 우리는 정부의 국정목표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경쟁력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서울에 역량이 집중된 의류에 집중하여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패션의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자인, 신소재개발, 기획 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최종 제품과 연계한 기획, 소재개발 등 R&D, 디자인, 판로 개척 등

일관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유통 및 마케팅 관련해서는 모바일 플랫폼 개발 지원 및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온라인 쇼핑몰 및 모바일 거래 실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출 확대까지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체의 온라인 및 모바일 패션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모바일,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는 한류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 개발, 제품 촬영 및 상품 정보 등 서비스, 제품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류의 수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의 주요 자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의류 제조 및 유통이다. 최근의 동향에 의하면 주력 수출품목이 대개도국행 섬유직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의류제품의 수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한류와 FTA이다. 2012년 불황에도 불구하고 K-POP 주도의 한류열풍으로 중국, 일본 등 외국인의 백화점, 동대문, 명동 등지의 화장품 및 의류쇼핑매출이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경기위축에 따른 소폭의 감소세가 예상되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외국관광객이 전년비 3배 증가한 가운데, 의류 구매 비중이 중국인은 60.7%, 일본인은 55.8%에 달한다. 따라서 이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한류마케팅 및 콘텐츠 개발 지원 필요하다.

셋째, 기체결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봉제 생산기반 활성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미 또는 한·EU FTA가 논의될 당시 봉제의류가 가장 큰 수혜업종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 등 중저가 범용의류와의 경쟁력 열세로 국내시장은 물론 주력 수출시장 모두 잠식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봉제 생산기반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약화되어 20~30%대의 고관세 철폐 및 단계적 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생산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는 중국산 저가 섬유의류 유입 급증으로 국내 섬유생산기반을 더욱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산 직물 및 의류품목의 양허제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넷째, 국내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생산 및 투자 전략의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동남아로의 생산비절감형 투자가 향후 동남아에서 생산비 우위가 약화된다면 그 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또 다른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찾아야 할 시점이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된다.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 및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취업 알선 강화가 필요하다. 직장내에서 비정규직 및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이 높은 점은 향후 여성인력의 고용 안정화 및 복지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젊은 여성 인력 유입을 위해 봉제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탁아소 등 육아 인프라의 정비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가사 또는 육아를 위해 일선을 떠났던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섬유관련 전문가 직능교육을 시행하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예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북부 니트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교육수료 후 섬유기업 취업 연계하여 도민의 취업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